

자신감 붙은 KIA 박민, 순위 싸움 불붙인다

LG 상대 데뷔 첫 홈런 등 활약
“불안감 없어지니 결과 달라져
뛰는 동안 재미있게 야구할 것”



“마음이 달라지니 결과가 달라졌다.”

KIA 타이거즈는 '부상 악재'에도 지난 6월을 15승 2무 7패, 승률 0.682로 마무리했다. 특히 2위 LG 트윈스와의 맞대결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면서 상위권 순위 싸움에 불을 붙였다.

주전들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은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KIA. 박민도 힘을 보탠 선수 중 한 명이다.

박민은 수도권 9연전 기간 데뷔 홈런을 날리는 등 24타수 7안타, 0.292의 타율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LG 공격을 막는 좋은 수비도 연이어 선보였다.

박민은 KIA가 수비에 주목해 2020년 2차 1라운드 선수로 선택한 선수다. '내야의 사령관' 박찬호가 수비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후배가 박민이기도 하다.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민은 “마음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박민은 “야구장 나왔을 때 불안감, 긴장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작년에는 수비 나가도 신경 많이 쓰고 공에 집중이 안됐는데 올해는 공에만 집중이 된다. 멘탈이 달라진 것 같다. 뭐라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수비는 멘탈이 큰 것 같다”며 “장갑도 회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껌도 씹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 봤다. 긴장을 덜 하는 것 같다. 내 주전에 오는 공은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한다. 타자 주력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무모한 플레이는 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은 “찬호 형은 리그 톱의 수비 실력을 가지고 있다. 찬호 형은 화려하면서도 기본기가 좋고, 나는 화려하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게 하는 수비다”며 “긴장 안 하고 하는 게 박민의 수비다. 그게 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박민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타석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순위 싸움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올랐다.

〈KIA 타이거즈 제공〉

수비도 수비지만 타석에서도 '확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민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 같다. 앞서 키움전까지는 내 존이 아닌 공에도 방망이가 나갔다. 타석에서 긴장하고 밸런스가 흔들리니까 내 존이 아닌 공에 나가서 헛스윙하고 그랬다. 잡실 거부터 떨어지는 공을 잡기 시작하니까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왔다. 김주찬, 홍세완, 조승범 코치님들이 ‘급하다’고 하셨다. ‘늦어도 되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쳐봐라’ 그 말 듣고 괜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이범호 감독도 달라진 마음가짐을 주목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퓨처스 총괄코치를 하면서 사구 트라우마를 겪은 박민의 변화를 이끌었다. 박민은 신인 시절인 2020년 5월 타석에서 공을 맞아 안와 골절 부상을 당했다. 이후 수비 과정에서 공에 맞아 코뼈가 골절되기도 했었다.

이범호 감독은 “민이는 수비 원래 잘했다. 규성이와 민이는 찬호한테도 뒤지지 않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 자세도 좋고, 공도 잘 던지고 수비 쪽에서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타석 들어갔을 때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기술적인 것도 좋아졌다. 퓨처스에서 얼굴에 공을 맞으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 같다. 퓨처스 총괄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두려움이 상당했던 것 같다. 야수들이 5년 정도는 해야 자기의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온 것 같다. 좋은 플레이 하나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은 “감독님께서 2군 총괄하실 때 ‘투수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머리가 앞으로 쏠리니까 피하지 못하고 공을 맞게 된 것이었다.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맞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꿨다”라고 말했다. 박민은 여유 있게 그라운드에 오르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박민은 “작년에는 경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흥분했다. 사람도 많고 하나가 침착하지 못했는데 여유를 가지고 하나가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다. 급하다고 해서 여기 더 오래 있고, 급하게 안 한다고 해서 2군 가고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서 편하게 내야구 하자고 마음먹었다. 내려갈 때 가더라도 재미있게 하자는 생각이 많이 됐다. 차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일본 축구 레전드 K리그 온다 2부리그 수원 삼성 코치 영입



프로축구 K리그2 (2부) 수원 삼성이 1990년대를 풍미한 일본 레전드 이하라 마사미(57·사진) 전 가시와 레이솔 감독을 코치로 영입한다.

수원 구단 관계자는 1일 “변성환 감독을 전술적으로 보좌할 국내의 지도자를 찾다가 이하라 코치를 영입하게 됐다.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주 안으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하라 코치는 홈페이지를 통해 “첫 해외 도전, 새로운 도전이지만, 내가 필요한 곳이 있음에 감사하며, 팀의 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하라 코치는 1990년대 일본 대표팀 포백 수비라인의 핵심으로 한국 팬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예선 한국 공격수들을 괴롭혀 국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이어 2위를 한 뒤 플레이오프를 거쳐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이하라 코치는 본선 무대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이하라 코치는 A매치 122경기를 뛰며 센추리클럽에 가입했다.

현역 시절 한국을 여러 번 상대한 이하라 코치는 은퇴 뒤 일본 올림픽 대표팀 코치 등을 지내면서 한국 축구를 지켜봐 왔다.

아비스파 후쿠오카 감독 등을 거쳐 최근엔 2023년부터 2년간 감독으로 가시와를 지휘했다. 이하라 코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계 수준임을 입증한 일본 축구의 수비 전술을 근본부터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로 꼽힌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주FC, 코리아컵 4강 ‘다시 한번’

오늘 안방서 울산HD와 8강전 A매치 휴식 앞두고 총력전 예고

광주FC가 다시 한번 코리아컵 4강 무대를 밟는다.

광주FC는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FC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 경기를 치른다.

지난 28일 FC안양과의 리그 일정을 소화했던 광주가 4강 길목에서 ‘난적’을 만나게 됐지만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안양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는 등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화력이 살아난 게 무엇보다 반갑다.

안양전에서 아사니와 신창무가 나란히 ‘1골 1도움’을 활약을 펼치면서 베스트11에 선정됐고, 박인혁도 대전전에서 골맛을 봤다. 제주 원정에서는 정지훈이 프로 데뷔골을 터트리는 등 공격수들의 발끝이 매섭다.

연달아 경기에 지르려 했지만 광주 이정호 감독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올 시즌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결과를 만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면서 전력 옵션도 많아졌다.

광주를 찾는 울산은 몸이 무겁다.

울산은 클럽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3경기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한 울산은 코리아컵을 통해 다시 시동을 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로서는 ‘설욕전’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해 코리아컵에서 구단 처음 4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울산에 막혀 결승 진출이 무산됐었다.

이번에는 8강에서 이뤄진 승부. 광주는 최상의 경기 감각을 앞세워 먼 길을 다녀온 울산을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A매치 휴식기가 찾아오는 만큼 선수들도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는 각오다.

이정호 감독은 “울산과의 코리아컵 8강전은 총력전을 펼칠 생각이다. 마침, 이 경기가 끝난 후 A매치 기간으로 인해 2-3주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 만큼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위기를 넘고 치르려 된 경기인 만큼 선수들의 간절함도 남다르다.

광주는 수원FC를 상대했던 16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에도 1-1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 승리를 거뒀다. 골키퍼 노희동이 승리 주역이었다. 선방을 펼치면서 8강행을 이끈 노희동은 김경민의 부상 상황에서 리그에서도 경험을 쌓아가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

광주는 매 시즌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코리아컵 우승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남겨놓은 광주가 이정호 감독의 지략을 앞세워 4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FC가 발끝이 매서워진 박인혁(왼쪽) 등을 앞세워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를 상대로 코리아컵 4강행을 노린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아사니 2주 연속 ‘베스트11’

신창무·변준수도 뽑혀

광주FC의 아사니(사진)가 2주 연속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일 K리그1 2025 21라운드 베스트11을 선정했다. 앞선 20라운드 대전전에 이어 21라운드 FC안양과의 맞대결에서 ‘1골 1도움’을 활약을 펼친 아사니가 신창무, 변준수와 함께 명단에 포함됐다.

아사니는 지난 28일 펼쳐진 안양 원정에서 전반 11분 신창무의 선제골을 도왔다. 공을 몰고 상대 박스로 진입한 아사니는 슈팅 대신 허를 찌르는 패스를 시도했고, 신창무가 원발로 골을 터트리면서 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광주는 2-0으로 앞선 전반 41분 안양 채현우에게 실점을 했지만,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2-1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사니는 전반 37분에는 반대로 신창무의 패스를 골로 연결하면서 득점도 올렸다. 서로의 골을 도우면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친 아사니와 신창무와 함께 팀의 승리를 지킨 변준수가 ‘베스트 11’의 영광을 안았다.

안양전 7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간 광주는 ‘승점 3’을 더해 5위로 올라섰다.

한편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는 K리그2 18라운드 베스트매치로 선정됐다.

전남은 지난 29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북청주와의 원정경기에서 2골을 먼저 내줬지만, 승점 1점을 챙겼다.

후반 교체 멤버로 나선 하남의 헤더로 추격을 시작한 전남은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고태원의 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